

## 교환학생 귀국 설문조사서

파견 학교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파견 기간 : 2025-2학기

이름 : 지\*우

학과 : 경영학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출국 전 준비사항

1. 해당 자매교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경우 지원하는 교양 수업의 수는 많았으나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특히 일부 학부 전공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부 25/26 Winter Semester의 경우 진행되는 수업의 100%가 독일어 수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전 반드시 개설 과목과 수업 언어를 충분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베를린자유대학교는 캠퍼스가 한 곳에만 모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베를린 내 여러 지역에 수업 및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의학은 Döppel, 지구과학은 Lankwitz, 의학 관련 시설은 Steglitz에 별도로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교양 수업이 이루어지는 메인캠퍼스인 Dahlem과 다소 떨어진 지역일 수 있습니다.

2. 해당대학에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 참가 학생들이 해당학교의 교환학생 파견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본교 국제처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와 기존 교환학생 수기, 그리고 Freie Universität Berlin 측에서 보내주는 안내 메일들이었습니다. 특히 파견교에서는 독일어와 영어로 행정 관련 메일을 비교적 자세히 보내주기 때문에, 메일을 꼼꼼히

읽고 순서대로 준비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독일 교환학생 후기, 베를린 생활 팁, 비자 및 기숙사 관련 경험담들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식 자료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마주치는 작은 변수들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후기들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해당대학에서의 수학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에서 경영학 전공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되었고,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원 수업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의 경우 서류 작성을 통한 별도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행정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리게 느껴져 수강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인공지능 회계 과목이 개설 취소되는 일도 있어 수강 계획을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4.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일에서 한 학기 이상 체류하며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입국 후 체류허가(Residence Permit)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류를 미리 갖추고, 미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행정 처리 속도가 늦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준비하거나 예약을 못할 경우 출국 전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슈페어konto(Sperrkonto), 즉 차단계좌 관련 서류입니다. 이는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정증명 수단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해 두고 매달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큰 금전적 부담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수학하고자 하는 월) x (992유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준비하여 슈페어konto에 넣어야합니다.

그 외에도 여권 사본, 파견교 입학허가서, 보험 가입 증명서, 비자 신청서, 여권사진, 비행기 티켓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독일 입국 후에도 Residence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 안멜dung(Anmeldung = 거주지 등록), 보험, 재정증명, 여권, 입학허가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 서류를

한 번 준비해 두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도착 후 행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원본과 사본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일부 전환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식 대사관 안내와 더불어 최근 교환학생 블로그 후기들을 함께 참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5. 항공권은 언제쯤 어떻게 구매하였습니까?

항공권은 출국 약 3개월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예매한 덕분에 가격과 일정 측면에서 무난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항공권만큼은 꼭 미리 예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ISIC 국제학생증 인증을 통해 학생 혜택이 적용되는 항공권을 이용하였고, 그 덕분에 위탁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장기간 체류로 인해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만이 아니라 수하물 조건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에서 하나 은행과 제휴를 맺어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발급받아 두면 항공권 구매 뿐만 아니라 독일 입국 후 박물관, 관광지, 음악회 등에서 다양한 학생 할인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B. 해당대학에서 수학하면서

#### 1. 해당대학과 우리대학의 체제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은 수업의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비교적 익숙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Vorlesung(강의)과 Seminar(세미나)의 개념이 중요한데, 세미나 수업에서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수업 도중 교수님께서 3~5분 정도 옆자리 학생과 짧은 토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매 수업마다 있었고, 어떤 수업은 1시간 30분 전체가 학생들 간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 다음 부분에 있어서 해당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수강신청 방법 :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수강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학기나 학과, 우선순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수님이 받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대학원 수업의 경우 학교 측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분들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강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 수업시간 :

대부분의 수업은 시간표상으로는 2시간 단위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업은 앞뒤 15분을 제외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일반 학부 수업과 달리 한 번에 5시간 / 6시간으로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 수업형식 (예: 강의, 세미나, 개인지도, 랩, 기타) :

대부분 세미나 형식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단순 강의식 수업도 존재했지만,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원 수업의 경우 매 수업마다 다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업의 난이도 :

교양 성격의 과목들은 난이도가 적절했습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아 단순히 학점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배우는 재미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학원 수업은 확실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수업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깊이와 읽기 자료의 수준, 평가 방식이 확연히 달랐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수업참여도 및 출석 관련 :

출석에 관해서는 한국 대학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수강한 대학원 수업의 경우 아예 별도의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던 반면 학부 수업의 경우에는 전체 수업 횟수의 약 85%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 시험 :

시험 방식은 한국에서 흔히 접하는 객관식 및 단답형 시험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교양 수업의 경우 2,000~2,5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제출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어진 주제 및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고 생각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각각 계산 문제와 에세이형 문제가 혼합된 시험과 논문 형식의 장문 서술형 답변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 과제량 :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이 예습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교수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가는 수업이 아니라, 미리 읽기 자료를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해야만 토론과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읽어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까웠습니다. 읽기 자료의 양이 적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수업 자체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흘러가기에 읽기자료를 숙지한 경우 수업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 이수학점 (본인 총 이수학점) :

총 12학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3.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후배들에게 추천하고픈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Daniel Nethery 교수님의 Integration in Germany 과목과 Basic Income and Inequality 과목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먼저 Integration in Germany는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연결되어 더욱 와닿는 수업이었습니다. 독일 사회 안에서 이민, 통합, 역사, 사회 제도 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배우며, 단순히 "독일에서 산다"는 것을 넘어 "독일 사회를 이해한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로 이주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경험을 다루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Basic Income and Inequality는 기본소득과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학생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두 수업 모두 내용 자체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대학교다운 수업'라고 느끼게 해 준 과목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수님과 학생들,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4. 수업내용은 만족스러웠습니까?

교양 수업의 경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시선을 넓힐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독일이라는 사회 안 외국인으로써 직접 생활하며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많아,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수업들의 경우 다소 아쉬웠고, 교환학생의 입장에서 과분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5. 해당대학에 학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를린자유대학교의 경우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나 행정 관련 문제는 결국 스스로 확인하고 메일을 보내며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까? 수강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수강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였습니까?

수업의 경우 원하는 대로 수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AI와 회계를 연결 지어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수업이 있었는데, 해당 과목이 개설 취소되어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수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교양 과목들과 난이도 높은 대학원 수업 등을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학업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 과정 속에서도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과목명	강의내용	참고사항
Current Developments in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Reporting	지속가능성 보고와 재무보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수업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ESG, 회계 및 공시의 변화 흐름을 학습하는 과목	6ECTS
Application-oriented Issues in Accounting and Auditing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실제 적용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수업으로, 이론보다는 실제 재무제표 분석과 응용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	6ECTS
Integration in Germany	독일 사회에서의 이민, 통합, 역사, 사회 제도 등을 다루며 외국인으로서 독일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수업	5ECTS
Basic Income and Inequality	기본소득과 불평등을 주제로 현대 사회의 분배, 평등, 복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	5ECTS
Infinity and the Evolution of Intelligence	지능과 진화,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으로 토론하고 긍정적, 부정적 관점들을 다루는 수업	5ECTS


8. 해당대학의 학습 분위기 및 관습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Freie Universität Berlin이라는 학교 이름처럼, 실제로도 여러 방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따로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가진 관심도가 큰 분위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업 선택의 폭, 학업 운영 방식, 학생들의 태도, 그리고 교수님과의 거리감 등에서 한국 대학과는 또 다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유는 단순히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수업을 찾아보고, 읽고, 질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자기 책임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남들의 시선이나 정해진 길에만 맞추기보다 자신이 진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노력 또한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하며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C. 생활환경에 대해서

1. 현지의 숙소는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숙소는 StudierendenWERK이라는, 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기숙사 운영 기관을 통해 구하였습니다. 겨울학기 기준으로는 보통 6월 초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 특유의 행정 처리 방식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시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수강신청처럼 생각하고 신청 시작 시각보다 이르게 접근했다가, 시스템상 이전 학기 학생으로 판정되

어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은 월세가 매우 비싼 편이고, 학교 기숙사 외에 일반 숙소를 구하려고 하면 shared apartment 형태가 많아 화상 인터뷰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생이라면 가능하다면 학교와 연계된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월세는 359유로, 보증금은 775유로였습니다. 기숙사 선택지 중에서는 괴어잘레(Goerzallee) 와 할바우어벡(Halbauerweg) 이 비교적 선호되는 편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위치, 시설, 청소 서비스 유무 등을 잘 비교해 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2.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선택범위와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학교 기숙사 외의 선택지로는 WG(쉐어하우스), shared apartment, 개인 스튜디오, 호텔 등이 있으나,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도 주거비가 높은 도시로 꼽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특히 개인 숙소를 구하려면 월세가 더 높아지고, 계약 과정에서 인터뷰 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교환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면, 가능하다면 기숙사 신청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식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식사는 주로 학교 식당인 Mensa를 이용하거나 직접 요리해서 해결하였습니다. Mensa는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외식에 비하면 부담이 덜한 편이어서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정액제가 아니라 음식 종류별로 각각 책정되는 방식이어서, 감자나 당근 같은 반찬도 따로 가격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조금씩 담기보다는 한 가지를 충분히 담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장보기 주로 Kaufland 같은 대형마트에서 했는데, 독일 마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할인 가격을 잘 노리면 식재료를 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접 요리하는 비중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요리 실력도 꽤 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처럼 언제든지 편하게 사 먹는 식생활과는 다르게 계획적으로 장을 보고 요리해야 한다는 점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모든 마트가 문을 닫기에, 미리 먹거리를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4. 현지에서 머무르는 동안 건강상태는 양호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는 무난했지만, 건조한 공기 때문인지 주변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한 번쯤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었지만, 독일에서 물에 타 마시는 비타민 태블릿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vitam을 자주 챙겨 먹으며 회복했습니다.

보험은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Residence Permit의 조건 중 하나가 독일 공보험 가입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슈페어콘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매달 144유로씩 빠져나가는 비용은 학생 입장에서 꽤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험 혜택을 크게 체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체류 중 치아 문제로 신경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제가 별도로 선택한 추가 시술을 제외하면 전액의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었습니다.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막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아 스케일링, 유방암 방지 주사 등 보험처리가 되는 서비스 등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5.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이 있었습니까? (예: 음식, 옷, 개인 위생품, 기타)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가야 할 물품 또는 두고 가도 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베를린은 아시아 마트가 꽤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외국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재료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자주 먹는 재료라면 어느 정도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물건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고기 씹장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외의 생필품이나 식재료는 현지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용 간식 등을 제외하고는 너무 많은 짐을 가져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컴퓨터나 도서관, 기타 해당대학의 시설물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 특히 도서관이 정말 좋았습니다. 공간 자체도 쾌적하고 디자인도 인상적이어서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없는 날에도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도서관 이용 방식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 소지품을 투명한 바구니에 넣어 들고 들어가야 했고, 가방은 사물함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7. 해당대학의 학생들과의 교제는 원활하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교에는 한국학과가 있어 관련 행사도 종종 열리고, 버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간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열리는 보드게임 모임이나 여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 D. 지출경비에 대해서

1.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여행 또는 관광하는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업이 있는 날과 없는 날 모두 학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베를린 시내의 명소들을 둘러보거나, 경우에 따라 1박 2일 정도로 다른 지역에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학업과 일상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2. 해당대학에 머무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숙박 및 식비 :

기숙사 월세: 총 3,231유로

기숙사 보증금: 775유로

항공권, 생활비 등 총 지출: 약 1300만원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숙소와 보험, 식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해당대학에서 지출한 금액과 항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해당대학의 부대 서비스, 각종 시설물, 컴퓨터 및 도서관 이용 관련 등)

학교 관련 지출로는 우선 Semesterticket 및 semester fee 성격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대략 100유로 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를 통해 학생 신분 유지와 일부 서비스 이용, 교통 관련 혜택 등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도서관이나 학교 시설 자체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크게 지출한 항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설 이용 자체는 대체로 자유롭고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세부 항목은 개인이 납부한 내역서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현지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저는 N26 계좌를 이용하였고, 비교적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앱을 통해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화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실물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곳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슈파카세(Sparkasse) 같은 전통적인 현지 은행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환학생처럼 한 학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N26 같은 모바일 은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E. 후배를 위하여

1. 다음 참가자들이 해당대학의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여행책자, 소설, 신문, 영화 등)

가장 큰 도움을 준 자료는 역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독일 교환학생 후기들이었습니다. 메일로 받은 공식 안내문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같은 정보는 개인 후기에서 훨씬 생생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자, 기숙사 신청, 슈페어콘토, 보험,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등 초기 정착과 관련된 글들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베를린자유대학교와의 파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기가 다른 대학만큼 많이 있지는 않지만, 국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존 교환학생 수기들도 꼭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조언, 비판, 제안을 써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Freie Universität Berlin 파견 정원이 1명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학교로 함께 파견되는 학생이 없다는 점에서 준비 과정이나 현지 생활 초기에 다소 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파견 전 같은 지역이나 같은 국가로 가는 학생들끼리라도 교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독일로 파견되는 학생들끼리 슈페어콘토와 거주허가와 같이 홀로 준비하기에 힘들 수 있는 정보들이나 생활 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초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느낀점(스스로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 교환학생 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장은 익숙함이 아닌 불편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단순히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고방식을 하나씩 다시 바라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함이 독일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어락, 빠른 행정 처리,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집을 나설 때마다 반드시 열쇠를 챙겨야 했고, 행정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번 메일을 보내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런 환경이 저를 더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열쇠 하나를 챙기는 사소한 습관부터,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차분히 대안을 찾는 태도까지, 독일의 불편함은 저에게 꼼꼼함과 준비성을 길러주었습니다.

둘째, 생활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외식비가 비싸고 모든 곳이 일찍 문을 닫으며,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리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와 집안일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장을 볼지, 빨래와 청소를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계획하면서 생활을 주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자취 생활을 넘어, 일상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셋째, 학업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으로 주어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 참여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중 짧게 옆자리 학생과 의견을 나누거나, 한 시간 반 동안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며 처음에는 독일의 수업 방식이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 및 관점들을 가진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보다, 나의 관점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넷째, 독일 사회가 가진 가치관도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환경을 고려한 판트(Pfand) 시스템 등 사회적인 요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노숙자, 사회적 시선 등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적어도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도와 일상 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짧은 기간의 여행이 아닌, 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배움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과 기준들이 사실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결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커리어보다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업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 반드시 하나의 정해진 길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역시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은 감정적 교류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돌이켜보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스스로 적응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국제처와 베를린자유대학교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여러분이 작성하는 본 설문지는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대학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파견기간 : 2025-2학기 성명 : 지\*우

※ 작성 시 유의사항

- 설문지 제출확인을 위해 성명 표기를 반드시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처리 해주기 바랍니다.
- 괄호 안에 ✓표시를 하거나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 작성 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커뮤니티-해외체험수기에 직접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 )	4점 도움됨 ( )	3점 보통 ( )	2점 도움되지 않음 (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

1-2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해외전문 확장 및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 )	4점 도움됨 ( )	3점 보통 ( )	2점 도움되지 않음 (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

1-3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친구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5점 적극 추천 ( ✓ )	4점 추천 ( )	3점 보통 ( )	2점 반대 ( )	1점 절대 반대 ( )
-------------------	--------------	--------------	--------------	-----------------

2. 다음은 현지 교육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파견기관은 어디입니까?(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

2-2 현지 수업의 방식과 질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	4점 만족 ( ✓ )	3점 보통 ( )	2점 불만족 (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

2-3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내용이 현지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 ( )	4점 도움 ( )	3점 보통 ( ✓ )	2점 도움안됨 ( )	1점 전혀 도움안됨 ( )
-----------------	--------------	----------------	----------------	-------------------

2-4 현지 수업방식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강의식 ( )	토론 및 발표 ( )	세미나 ( ✓ )	팀프로젝트 ( )	기타방식 ( )
------------	----------------	--------------	--------------	-------------

2-5 현지 파견기관의 시설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	4점 만족 ( ✓ )	3점 보통 ( )	2점 불만족 (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

3. 다음은 현지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현지 숙소를 찾게된 경로를 적어주세요

파견교 제휴 기숙사 업체 studierendenWERK을 통해 기숙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교환학생 합격 후 FU Berlin 측에서 안내 메일을 통해 신청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3-2 숙소의 형태, 하숙 및 룸메이트 숫자, 비용을 적어주세요

- 숙소의 형태 : 기숙사(  ), 아파트 (  ), 스튜디오 (  ), 하숙 (  )
- 룸메이트 : 5명
- 렌트비 (1개월 기준) : 359.05유로 / 보증금 775유로

3-3 주거 환경이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input type="checkbox"/> )	4점 만족 ( <input type="checkbox"/> )	3점 보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점 불만 ( <input type="checkbox"/> )	1점 매우 불만 ( <input type="checkbox"/> )
--	---------------------------------------	--	---------------------------------------	--

3-4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인실이 보장되어 개인 공간이 확보되었고, 주방·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플랫폼메이트들과 나눠 쓰는 구조로 생활 자체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장실과 주방이 복도 공용이라 사용 시간대가 겹칠 경우 불편한 점이 있었고, 소음 방지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오래된 콘크리트 방이라 많이 춥고 공기도 건조해 건강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3-5 현지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현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높은 물가와 이로 인한 식비 부담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저렴하게 외식을 해결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끼니를 직접 요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나 인프라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DB(독일철도) 기차 지연은 꽤 심각한 수준으로, 이동 계획을 세울 때마다 변수가 되었습니다.

4.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프로그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적어주세요.

항공료	학비	현지생활비	기타
약 600유로	Semester Ticket 100유로	대략 월 80만원	보험료 월 144유로, 라디오세 월 18.6유로 BahnCard 49유로

4-2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한 비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항공료 ( )	프로그램비 ( )	숙박비 (✓)	식비 ( )	기타 ( )
---------	-----------	---------	--------	--------

4-3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렌트비 자체는 베를린 시세 대비 합리적이었으나,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부담이 있었습니다. 유로와 원 환율 변동으로 체감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5. 다음은 준비과정 및 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학교 공지 ( )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브로셔 ( )	교수님 권유 ( )	친구 권유 (✓)	기타 ( )
-----------	-----------------------	------------	-----------	--------

5-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무경력 쌓기 ( )	어학능력 향상 ( )	전문 넓히기 ( )	해외여행 ( )	기타 (✓)
-------------	-------------	------------	----------	--------

5-3 오리엔테이션은 몇 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 ( )	2회 (✓)	3회 ( )	4회 이상 ( )	기타 ( )
--------	--------	--------	-----------	--------

5-4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용 (✓)	어학능력 ( )	학교생활 ( )	학교규정 ( )	기타 ( )
--------	----------	----------	----------	--------

6. 금년도 참가자로서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바라는 점들을 적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Freie Universität Berlin 파견 정원이 1명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학교로 함께 파견되는 학생이 없다는 점에서 준비 과정이나 현지 생활 초기에 다소 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파견 전 같은 지역이나 같은 국가로 가는 학생들끼리라도 교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독일로 파견되는 학생들끼리 슈페어콘토와 거주허가와 같이 홀로 준비하기에 힘들 수 있는 정보들이나 생활 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초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